

서구,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긴급 지원

자치구 처음...장애인·아동센터 등 100개 시설 5000만원

서구가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으로 겨울철 취약계층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회복지시설을 서구가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 앞서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도시가스 할인율을 인상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도 5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 및 어린이집과 경로당, 장기요양기관 등에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는 난방비 지원 사각지

대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관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33개소를 비롯해 노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0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전월대비 인상폭 기준으로 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50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서구는 또 관내 돌봄가구 중 보일러 고장 등 난방기 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10만원까지 수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광산구 전화입니다 안심하세요”

‘행정전화스마트 알림서비스’...통화하면 기관 표시

광산구가 민원인이 꼭 필요한 행정전화를 광고나 스팸으로 오인하지 않고, 제때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신 전화 화면에 기관 정보를 표시하는 ‘행정전화스마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행정전화스마트 알림서비스’는 민원인에게 전화 발신 시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발신 기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행정전화를 광고나 스팸 전화로 오해해 통화 연결이나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광산구청 실·과·소 및 21개 동과 사업소에 있는 행정전화 1800여 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신전화
062-960-8278
광산구청

상호의 마음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앞으로 행정전화 발신 시 ‘광산구청’, ‘광산구 보건소’ 등과 같이 전화를 받는 민원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기관 정보가 표시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기 기자

‘제20회 충장축제’ 김태욱 총감독 위촉

광주서 대형 국제프로젝트 연출 등 광주와 인연

동구는 올해 성년을 맞은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성공 개최하고자 문화기획자인 김태욱 총감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태욱 총감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총감독, 2019년 대한민국 문화의 달 총감독, 2020~2021년 세계유산축전 총감독, 2021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총연출 등을 역임하며 대규

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2013 카잔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 인수 한국문화공연 총감독,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총연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 연출감독 등, 광주의 상징성을 집약해 전 세계에 선보인 작품들을 만들어낸 인연이 이번에도 다시 이어지게 됐다. /김도기 기자

학교 노마스크 첫날 “친구 맨 얼굴 반가워”

교실 5~6명 제외 마스크 벗어... “지원하다” 마스크 소지·환기는 필수...방역 고삐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광주 남구 봉선동 문성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고 있다.

“교실에서 간만에 친구들 맨 얼굴 보니 반갑고 새로워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문성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은 채 상쾌한 표정으로 교문에 들어섰다.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한 학생은 코로 바람을 깊게 들이쉬며 “지원하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벗은 다른 학생도 “안경에 김 안 서서서 좋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다만 학생들은 마스크를 손목에 걸어두거나 주머니에 넣어두는 등 여전히 방역 고삐는 놓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버스에서부터 착용한 마스크를 그대로 쓴 채 등굣길에 오르기도 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 학생 중 대부분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 나머지 5~6명만 감염 우려를 고려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각 교실 책상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m씩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우정만은 끈끈해 보였다. 삼삼오오 모인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간만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채 웃음을 피웠다.

한 학생이 마스크를 쓴 학생에게 벗길 권유하자 “마기꾼이라 안 벗을 꺼다”면서 장난치기도 했다.

교실 한 칸에선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이르다’, ‘괜찮다’로 나눠 열띤 논쟁도 펼쳐졌다. 마스크를 쓰고 있던 학생들도 먼저 온 친구들의 맨 얼굴을 보자 슬그머니 마스크를 벗어두기도 했다.

벗어두기도 했다.

한 교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조치를 안내하면서도 감염 확산을 우려해 교실 환기를 당부했다.

2학년 임수찬(18)군도 “마스크를 벗은 친구들을 보니 더 반갑다”며 “새학기 맨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친구들 얼굴도 빨리 외출 수 있고 서먹함도 덜 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착용 권고사항’을 혼란스러워하며 마스크를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내에서 1m 내로 인원이 밀집한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실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학생들이 밀착해 있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학년부장 김정주 교사는 “쉬는 시간이나 발표 때 1m 거리두기 확보가 안 될 때가 현실적으로 많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됐지만 감염 방지를 위해 착용을 권고하거나 교실 내 환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학령인구 감소 뚜렷’...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본격화

“맞춤형 교육과정·다문화 강점 최대 활용”

전남지역 수십년 역사의 초·중·고가 교문을 닫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보장’ ‘특색 교육과정’ ‘다문화 강점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지능(AI) 온라인 콘텐츠 기반 통합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또 섬 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해 더욱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특수한 상황을 활용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나라 탐방 프로그램, 지역 단위 이중언어 강사 양성, 다문화가정 통합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진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배 기자

북구,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일자리 매칭’ 운영

북구는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는 기존 취업정보센터를 등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운영해 거리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북구는 신용동, 운암1동, 두암2동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시 일자리 상담이 가능한 거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육아·저경력 공무원 우대’...광주교육청, 인력관리계획 마련

적극행정·격무부서 공무원 포상·승진 우대

광주시교육청이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차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저경력공무원 점수 배려 등 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정(正)과 배려(情), 혁신적 포용(容) 정책이 중심

인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두 자녀 이상만 적용 받을 수 있었던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을 대폭 확대

했으며 우대점수도 기존 점수의 3배로 상향했다.

또 고경력자들이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20점에서 절반인 10점으로 낮춰 저경력공무원이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매년 선발되는 적극행정 공무원과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

여급 최고 등급을 부여하며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실적기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5급(사무관) 승진 대상은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젊은 세대 세내기공무원들의 빠른 공직적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신설했으며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한다. /김도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